

## 여기도 행복합니까?

하와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간다. 여행객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통 머무는 곳은 와이키키(Waikiki)라는 유명한 바닷가 근처다. 와이키키에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먹고 즐기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와이키키는 유명하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와이키키는 그리 사랑받는 곳은 아니란다. 사업을 하는 장소로는 좋겠지만 쉬고 즐기기 위하여 와이키키에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차들이 너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며, 바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풀장 같고 퍼다 놓은 모래밭이라 자연미가 없는 소음과 매연 그리고 발딩마다 뿜어 대는 에어컨 소리에 반가운 곳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하와이 주민님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이다. 그중에 한 장소가 내가 묵었던 호텔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해군기지 바닷가였는데 친구 목사님의 인도로 그 조용한 곳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다. 파도는 잔잔했다. 나무에 그늘이 있었다. 그곳에 15분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4일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나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 소리 때문이었다. 그 파도 소리는 와이키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높고 강한 파도가 저쪽에서 벌써부터 꺾여 내가 있던 곳에 올 때에는 아주 잔잔한 파도가 되어 있었다. 그 소리가 약하지만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와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곳에 더 있고 싶었지만 다른 장소로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마음에는 그 장소가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길을 인도한 목사님께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네”라고 했다. 내가 느낀 감동과 같은 것이 없이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서북미에 감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저 먹고 산다고 하며 숨 가쁜 장소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잔잔히 서북미에 밀려오는 아름다움의 소리는 하와이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곳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는 행복하라고 주셨다. 그곳이 어디이고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여도 행복을 찾아갈 때에 그 행복의 길이 보이고 평안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라고 하셨다.

혼자서 세상을 짊어지고 가며 메마른 삶을 살지 말고, 무거운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